

## 광주·전남 글로벌대 2곳 선정... 전남대 2년 연속 탈락

국립목포대·광주보건대 본지정 광주, 2년 연속 4년제 대학 고배 전남대, 예비지정대 지위도 상실 시 "충격"...전남대 "내년 재도전"

지방대학교에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하는 2년차 '글로벌대학30' 10개 단위가 결정됐다. 전남에서는 2년 연속 국립대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고, 광주에서는 전문대로만 구성된 '초광역 연합대'가 탄생했다. 그러나 지난해 탈락 후 절치부심했던 전남대학교는 올해도 고배를 마셨다. 전남대는 올해의 경우 예비대학 지정 단계도 건너 뛴 만큼 선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또다시 탈락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중수 교육부 글로벌대학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글로벌대학 본지정 선정 평가 결과, 10개

단위 17개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대학 30'은 2026년까지 지방대 30개 단위를 지정,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타개하고 파격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주는 사업이다.

본지정 평가를 통과한 글로벌대학 단위는 △국립목포대 △광주보건대·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 △건양대 △경북대 △국립장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 등이다.

이 가운데 광주보건대, 대구보건대, 대전보건대로 구성된 '한달빛 글로벌보건연합대학'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아우르는 최우수 보건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아시아 최고 전문대학을 목표로, 3개 보건대가 연합해 결성할 단일 거버넌스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대구·대전보건대

학은 5년 간 국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보건대학교라는 단일 거버넌스 아래 3개 지역에 각각 특화캠퍼스를 구축하고, 스킴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초광역 보건의료산업 전문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총 400억원의 직·간접비를 광주보건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경태 광주보건대 총장은 "광주시와 협력해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글로벌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국립목포대가 선정됐다. 지난해 순천대에 이어 지역 두 번째 글로벌대학이다. 목포대는 지난 20년간 '신해양 시대의 리더'라는 비전 아래 지속적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지정을 바탕으로 목포대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친환경 무

탄소 선박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에너지산업을 리딩한다는 목표와 함께 세계와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그린 해양산업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목포대는 그동안 최종 선정을 위해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철저히 준비해 왔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대학 구성원들의 합심된 에너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대학을 대표하는 전남대는 2년 연속 글로벌대학30 사업에 떨어지면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비대학 지정에 사전 선정돼 보다 손

쉽게 본지정에 이룰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광주시도 지역 대학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공청회와 지원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대학육성지원협의회, 본지정 추진단 운영 등의 지원을 해왔다. 특히 전남대지원반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전남대의 본지정에 집중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남대는 2년 연속 탈락으로 예비지정 대학 지위도 잃었다. 내년도 사업에 재도전할 경우 예비지정 대학이라는 지위부터 다시 얻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보건대 지정으로 기쁘면서도 전남대 탈락에는 충격을 받았다"면서 "왜 떨어졌는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내년도도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재도전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노병하·강주비 기자

## 광주시·공공기관 "광주産 캐스퍼EV 판로 확대"

업무용 차량 우선구매 상생협약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창출 기대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캐스퍼 전기차(EV)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산하 공공기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함께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캐스퍼홍보관에서 '캐스퍼 EV 우선 구매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제1호 상생일자리로 출발한 GGM의 캐스퍼 EV 초기 판매를 촉진해 안정적 생산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 윤봉현 GGM 대표, 송필용 현대차 광주전남본부장,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과 시 산하 공공

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 구입 또는 임차 때 캐스퍼 EV를 우선 구매하며, 캐스퍼 EV 판매 촉진 방안 마련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협약에 앞서 강기정 시장과 공공기관장들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공정을 살펴봤다. 이들은 또 캐스퍼 EV에 탑재된 배터리 특·장점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캐스퍼 EV에 탑재된 첨단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강 시장은 지난 27일에도 '광주 이차전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센터에서 '배터리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간담회'를 진행, 지역 배터리산업 현황 및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권범 기자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안전성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캐스퍼 EV 생산라인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관계자로부터 배터리 특·장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나건호 기자

태양보다 뜨거워질  
대한민국의 에너지 新산업

# 에너지수도 전남

인공태양연구시설 구축은  
전남이 답이다!

전라남도  
Jeollanamdo